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길”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LA·OC 지역서 일제히 열려



예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2014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20일 오전 5시 30분에 LA와 OC지역에서 진행됐다.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LA·OC 지역 곳곳에서 일제히 열리고 예수 부활하심을 축하했다.

LA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는 20일 오전 5시 30분에 동양선교회에서 열렸다. 이 지역은 18일부터 연일 개최되고 있는 제 2차 미스바대성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개회사를 전한 남가주교회 회장 박효우 목사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며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무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같이 오늘 아침 삶에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고통과 죽음,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8:11-18)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정광희 목사는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날”이라며 “닫혀있는 마음이라든지,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부활의 한날을 맞아 다 정리하고 참생명 되신 예수 부활하심을 찬양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박찬이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며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자”고 강조했다. 예배 설교자로 선 박찬이·정광희 목사는 성령바람교회에서 공동으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 박찬이 목

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부흥사협회 주강사, 전주연합신학교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정광희 목사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사 등을 맡고 있다. 예배에서는 △미국의 신앙 부흥을 위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이민교회의 부흥과 동포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남가주교회 연합을 위해 합심해 특별기도했다. 기도회는 정종윤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정삼희 목사(남가주교회 감사), 진석호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 이주철 사관(남가주교회 부회장), 최형호 장로(남가주장로회 회장)가 각각 인도했다.

한편 이날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차세대 장학금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남가주교회 측은 밝혔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SBC)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많은 소속 교회들이 겪고 있는 교인 수 감소를 해결하고 다시금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드웨스턴신학교 교회개척센터(Center for Church Planting)의 조슈아 헷저(Joshua Hedger)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남침례교에서는 매년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그 이유는 주로 지도자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교회들이 문을 닫는 또다른 큰 원인은 문화와 동떨어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물론 문을 닫는 교회 수만큼이나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 수도 많다. 남침례교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1,300개의 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헷저 박사는 이들 교회들이 교단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헷저 박사는 현재 교회들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리더십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교회 내의 문화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고 다른 교회가 시설과 자선, 그리고 교인들을 흡수하게 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교회들은 이 둘 중 하나의 길의 택한다”고 설명했다.

교회 성장 활성화 분야를 연구해 온 로드니 해리슨(Rodney Harrison) 박사는 교회들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려하는 또 다른 방안들은 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슨 박사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해결

美 남침례교, “교회 개척 만큼 기존 교회 지원도 중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영적 건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영적으로 병든 곳에 데려오는 격이기 때문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존 마크 클리프턴(John Mark Clifton) 목사의 교회는 침체를 겪었다가 최근 다시금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젊은이들의 참여”였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신선한 시각이 교회 사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클리프턴 목사는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보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생각이 목회자들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기준으로 남침례교의 전체 교인 수는 1천6백만 명 가량이었다. 교단은 올해 5년 연속 교인 수 감소를 기록했다. 이들 지도자들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단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교회들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해리슨 박사는 “기존 교회를 돕는 게 비용은 덜 들 수 있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소모는 더 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있는 교회들에서 빠져나가는 교인들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클리프턴 목사는 “교회를 재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를 섬긴다는 기쁨을 다시금 되찾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고도 말했다.

손헌정 기자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나라 오토 덴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OC지역 “믿는 자들 하나돼 세계 선교 앞장서자” 사우스베이 지역 “그날 기다리며 구원의 확신을 갖자”

OC교협 · OC목사회 · OC전도협회 연합해...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목사회 주관으로 열려

» 1면에 이어 계속

OC 지역 부활절연합사백예배는 20일(주일) 오전 5시 30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교협(회장 민경엽 목사),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 그리고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복수 장로) 공동주최로 열렸다.

예배는 민경엽 목사의 사회, 김영찬 목사의 기도, 신복수 장로가 성경봉독, 나침반교회 찬양대와 은혜한인교회 찬양대, 그리고 얼바인은누리교회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했다.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 28: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원하신 것은 절망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세계선교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활절을 기점으로 낙심한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이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민경엽 목사가 ‘대한민국 진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이호우 목사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김기동 목사가 ‘한국의 정치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오아론 목사가 ‘이민교회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민승기 목사가 ‘다음세대의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OC 교협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제30회 사우스베이 지역 부활절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OC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모습.

연합예배는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병용 목사) 주관으로 지난 20일(주) 새벽 5시30분에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의 사회, 구진모 목사(시온연

합감리교회)의 대표기도, 김병용 목사가 설교로 드러졌다. 연합성가대가 헨델의 할렐루야(지휘 김승엽 목사)를 부른 후 등단한 김 목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는 제목

으로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에 차 있었다. 그러나 삼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 기도순서에서 김관중 목사(벤엘장로교회), 이화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윤석형 목사(산샘교회)가 각각 특별 기도를 인도했고, 이기홍 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 원로)의 축도로 사우스베이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공동취재단

OC교협 ‘사랑의 컵라면’ 1700상자 나눠



지난 4월 15일 OC교협이 '사랑의 컵라면'을 나침반교회에서 나누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최근 ‘사랑의 컵라면’ 1700상자를 이웃들과 나누었다. 지난 2013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벌이고 남은 잔액으로 OC교협은 6개가 들어있는 라면 1700상자를 구매해 타민족 교회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이 라면은 약 10여개 라티노 교회를 비롯해 베트남교회, 베트남장애인센터, 멕시코 재활원 및 교도소, 몽골교회, 인도

교회, 일본교회, 교총리스, 슈하미선교회, 은혜한인교회, 얼바인침례교회 등에 배부됐다.

나침반교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이호우 부회장의 사회로 윤덕근 부회장이 기도하고 민경엽 회장이 인사 말씀을 전한 후, 민승기 부회장이 축사하고 김기동 부회장이 광고했다. 이후에는 교회 식당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준형 기자

〈이터널라이프〉 통해 성령의 역사 일어나다



〈Eternal Life〉 공연 장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부활절 뮤지컬 〈Eternal Life〉 공연에 연인원 5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 영혼을 더 예수 앞으로 인도하자는 전도 집회의 목적을 갖고 열린 올해 뮤지컬 공연에는 특별히 매 공연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사한 일들이 이어졌다고 교회측은 밝혔다. 한기홍 목사는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할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며 특별히 영혼 구원 및 전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집중 기도에 성령께서 큰 역사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공연에는 배경화면 및 모든 영상 지원을 최첨단 3D 디지털로 처리해, 예년의 공연에 비해 뮤지컬을 통한 감동이 배가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총 연출을 담당한 김현철 간

사는 “올해로 3번째 하게되는 공연이라 여러가지 면에서 출연진들이 더욱 완숙한 연기와 가창력을 선보였고, 이번 공연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과 교역자분들이 헌신적으로 협력, 후원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린다”고 공연 후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 실황은 CTS TV (채널 42. 또는 웹사이트 CTS.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박창민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ijk@gmail.com

2014년 미주지역 TP 1기 선교 훈련

(Turning Point : 단기선교사 훈련)

두란노해외선교회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훈련소개

온누리교회 ACTS29비전에 따라 선교지에서 1-2년간 장기선교사와 협력하면서 선교적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훈련 후 온누리교회(www.onnuri.org) 및 선교단체 TIM(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소속으로 파송될 선교사들의 훈련과정이다.

미주단기선교사 훈련 취지

1개월의 단기선교사 훈련을 위해 청년선교자원이거나 갈렙선교사 자원이 한국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던 시간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또한 미주 선교자원을 위한 강의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있다.

훈련목표

1. 선교헌신자로서 자기 정체성과 가정, 대인관계, 삶의 비전이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있게 한다.
2.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제반 이론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현지 사역의 기초를 닦는다.
3. 특히 젊은 층들이 단기선교사로서 자신의 선교적 소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인턴십 선교사가 되게 한다.

훈련대상

1.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세례교인으로 건강한 교회 구성원인 사람
2. 선교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헌신이 있는 자로서 1~2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3. 청년 선교 자원
4. 은퇴 후 선교의 비전을 품은 자(갈렙선교사-50세 이상)
5. 대학생 영어 교사(러시아 모스크바), TIM 사역 베이스(언어 교사, 음악 교사, 체육 교사 등)

훈련 원서 및 서류접수

Mar.03.2014 ~ May.05.2014(원서 및 서류는 TIMA와 상담 후 E-mail 접수)

훈련기간

4주간 합숙. Jun.01.2014 ~ Jun.29.2014

훈련비용

담당자 문의

훈련커리큘럼

별도 Facebook 공지

훈련장소 문의 및 연락처

Tel. 1-213-200-5202

E-mail : tima061204@gmail.com

Facebook : http://www.facebook.com/Acts29TIMA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15

제 2차 미스바대성회, “회개하여 성령의 불 받자”

남가주교협 주관, 강사는 박찬이·정광희 목사

제 2차 미스바대성회가 남가주교협 단독 주관으로 18일(금) 오후 7시 30분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차 대성회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요일에 열린 첫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나라”(왕상 18:20-24)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정광희 목사(성령바람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주문했다.

정 목사는 “시기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 바란다. 인간은 나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란다. 주님의 십

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을 받아 모든 죄가 다 소멸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할 때 다시 시켜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정광희 목사에 이어 성령바람교회에서 공동목회를 펼치고 있는 박찬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했다. 박 목사는 “엘리아와 같이 뜨겁게 기도해 성령의 불을 체험하자”고 강조했다.

첫날 예배는 사회 이춘준 목사(교협 부회장), 대회사 진유철 목사(남가주순복음교회), 기도 김복삼 장로(교협 이사장), 개회사 박효우 목사(교협 회장), 환영사 박형은 목사(교협 회장), 성경봉독 최형호 장로(남가주장



박찬이 목사가 기도회를 이끌고 있다.

로협 회장), 헌금송 박영진 찬양선교사(박이레 목사, 헌금기도 김철수 목사(교협 회계), 광고 정종일 목사(교협 총무), 축도 김사무엘 목사(산돌교회 원로)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19일 토요일에 새벽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집회가 있고 20일

주일에는 새벽 5시 30분, 오후 4시에 집회가 있다.

특히 주일 새벽 5시 30분 집회는 LA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를 겸해 열린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90004)다.

대회 강사로 선 박찬이 목사는 대 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부흥사업회 주강사, 전주연합신학교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정광희 목사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사 등을 맡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LA 아버지학교 제75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75기 아버지학교 봉사자들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LA 지역의 ‘아버지’들이 ‘아버지 후보’들을 위해 다시 모였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성경적 아버지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제75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아버지가 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또 여기서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아버지학교는 5월 10일, 11일,

17일, 18일 이렇게 토요일, 주일 오후를 이용해 나흘 동안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다. 특별 강의, 조별 토론, 아내와 자녀에게 편지쓰기, 수료식 등 눈에 보이는 순서들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구호 3번에 눈물을 펄펄 쏟고야 말았던 아버지의 수가 벌써 전세계 4968번의 아버지학교에서 27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된 아버지들은 서로 ‘형제’가 되어 그 다음 아버지 후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섬긴다.

이번 제75기 아버지학교를 앞두고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준비 모임이 매주 열리고 있다. 최근 모임에서 진행 팀, 찬양팀, 관리팀, 행정팀, 중보기도팀과 소그룹을 이끌 조장들은 각 팀마다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함께 기도했다.

이 행사의 찬양을 맡은 임의돈 형제는 “뜨거운 교회에서 행사가 진행되니 이번 아버지학교도 뜨거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75기 아버지학교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만큼 과거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던 아버지학교 출신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교회의 장로인 최영대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시덕 형제는 “아버지학교를 위해 자원봉사 하기 힘든 이유는 단 한가지, 피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사해야 할 이유는 이루 셀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학교에 등록하려면 5월 4일 주일까지 담당자(213-605-2909)나 진행자(818-523-5391)에게 연락하면 된다. 비용은 120달러. 자세한 정보는 www.fatherschoo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LA한인사회 ‘세월호’ 희생자 추모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LA한인회관에 설치했다.

LA한인사회가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LA한인회관에 설치했다. LA한인회와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KCCD 관계자들은 16일 오후 5시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박효우 목사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 안타까울수 밖에 없다.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생존자가 나타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LA한인회 배무한 회장은 “합동분향소를 한인회에 오픈했으니 동포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으면 한다”며 “LA를 기점으로 미국 전국에 분향소들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월호 총 승선자 중 179명이 구조됐으며 생사확인이 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BC, NBC, CNN 등 미 주류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마스 맹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정하게 웃음으로 사랑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연이 직접 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좋은 교회 건물에 완벽한 시설 있어도 사람 없다면

〈신학이 답한다 2 -아주사신학교 변명혜 교수〉 기독교 교육학이 말하는 한인교회 신앙 교육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충격적이거나 새롭지 않은 사실이 되어 버렸고 이런 위기론은 이곳 미주 한인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접근 방법과 분석이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현상을 겪게 된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해법도 분명 있을 것이다. 본지는 그 해법을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기 위해 남가주 지역 신학교의 한인교수들을 만나 〈신학이 답한다〉라는 주제의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다.

변명혜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M.A. 학위와 Ph.D. 학위를 받았다. 킹스대학교, 바이올라대학교, 웰드미션대학교 등에서 가르쳤으며 현재는 아주사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영성학을 가르치면서 한국어 석사 프로그램의 디렉터도 맡고 있다.

-현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성공적인가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소경교회들은 교육에 필요한 리소스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중대교회들은 전문성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사역에 대한 무지는 교회 크기에 관계 없이 존재합니다. 교육부 전도사, 목사를 뽑을 때에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신학교 학생이라면 그냥 OK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자들도 교육부서를 목회를 하려면 한번은 거쳐 가야 하는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교육부를 사역보다는 부모를 따라 온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의 재정 능력, 규모, 사역자의 문제를 떠나서 교육부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독교 교육은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성공적인가 아닌가는 단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결코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한인교회 중에 교육, 차세대 사역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말로 내세우는 철학과 실제로 행하는 철학이 다릅니다. 말로는 교육, 교육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교회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확인해 봐도 우리 교회가 정말 교육을 중시하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나까 주일학교 하고, 다른 교회도 다 하나까 VBS를 한다면 그것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는 상태겠지요. 그리고 교회의 교육철학은 담임목사뿐 아니라 모든 평신도 리더들이 공유해야만 결실이 맺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어린이 사역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다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사역의 대상인 어린이 수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인교회는 안전한가요? 유럽교회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겪는 이 문제는 10년 내로 미주한인교회의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그 안에는 노인들만 가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인교회 안에는 영어권에 대한 이상한 우대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들도 한국어 교육 사역자들에게는 힘든 사역을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영어권 사역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참석 등이 그렇습니다. 영어권 사역자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육 사역을 영어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실수가 많습니다. 물론 차세대 교육에 영어가 중요하지만 사역자가 영어를 못하면 영아부나 유치부를 맡고 영어를 잘하면 초등부나 중등부를 맡게 하는 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애들 봐 주는 교육부”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으로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이 성공적 신앙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가르치는 대상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겠지요. 예를 들면 교육학자 장 피아제는 사람이 11세-12세가 되기 전에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종교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거나 ‘내 살을 먹으라’는 표현을 11세 이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로널드 골드만도 동일해서 그는 “성경은 애들의 책이 아니다”라고 말해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추상적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입니다. 기독교는 상징적인 개념이 많은 종교인데,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를 못

하니 노래, 게임, 간식 등 말씀과 연결된 체험과 활동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영, 유아부 전도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내를 가르칠 때는 ‘참자’고 말만 해서는 안되고 팝콘을 만드는 기계에서 팝콘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식입니다. 물론 팝콘이 다 만들어지면 나누어 먹으면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지요. 추상적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역자에게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재미 위주라면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 보고 뛰놀았다는 성경 말씀처럼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영적입니다. 어린이들도 재미나 즐거움 안에 있는 영성을 찾습니다. 요즘은 경쟁적으로 재미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어린이들도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결국 신학교 교육이겠지요. 보통 신학교들이 학생에게 교육학 과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부에 있지 않더라도 목회를 하려면 당연히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지적, 정서적, 영적 발달의 특징을 알지 못한다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육에 관해 무지하니 어떻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잘 배우는지 모르고 지루함만 줄 뿐이죠. 신학교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 교육에서 교회와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신앙 교육은 가정과 교회라는 두 축에서 이뤄집니다. 가정 내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교육은 절대 교회에서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미국 기독교 교육계에는 ‘오렌지 컨퍼런스’라는 유명한 행사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니까 빨간색, 교회는 빛나니까 노란색, 이 둘이 섞이면 오렌지색이 된다는 것인데,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한 달에 한두번씩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권하면서 이 예배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연극도 관람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숙제도 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죠.

한인교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쉽지 않



변명혜 교수

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교육부 사역자가 하나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사태가 빚어지기 쉽습니다.

-네.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교육부를 위한 예산도 잘 배정해 주고 담임목사나 부모들이 교육부 행사에 참여해서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담임목사의 말 한 마디, 격려 한 마디가 교회 안에서 갖는 힘이 막강한 만큼, 담임목사가 얼마나 교육부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교회 전체가 교육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교육부 사역자들은 격려를 해 줄수록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꾸 무슨 보고서 내라, 헌금 통계 내라 그런 것 시키지 말고 작은 격려 한 마디가 교육부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

야 합니다.

부모들은 교회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어야 합니다. 포커스온더패밀리(www.focusonthefamily.com/parenting.aspx) 같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한 곳에 있는 자료만 해도 어린 자녀의 야간 소변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의 갈등, 포르노나 성교육 자료까지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 자료가 없지 않습니다. 못 찾고 안 찾는 것입니다. 혹시 언어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에서 번역해서 부모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사역자들은 어린이나 차세대들이야말로 이민교회를 이끌 리더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명감을 재확인 하기 바랍니다. 목사, 전도사, 교사가 어린이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방법은 설교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정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 탕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명: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세리토스 채플 1부 예배 오전 08:00 본당
 2부 예배 오전 10:00 본당
 벨리 채플 1부 예배 오전 10:00 본당
 2부 예배 오전 11:45 본당

〈ICY(InChrist Youth) (Grade 6th-12th)〉
 세리토스 채플 주일 8:00am, 10:00am
 벨리 채플 주일 10:00am, 11:45am, 금요일 7:45pm
 중등부(IC InTune 6th-8th) Room #50 Room #406
 고등부(IC InHim 9th-12th) Room #50 Room #406

〈영어청년부(Hesed)〉
 세리토스 채플 주일예배 주일 11:30am (비전채플)
 벨리 채플 주일 10:00am (Room #406)

〈새벽예배〉
 세리토스 채플 새벽예배 월~금 05:30 (비전채플)
 벨리 채플 월~금 05:30, 토 6:00

세리토스채플 11751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
 다운내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0
 벨리채플 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818) 363-5887, E-mail: iccc.office1@gmail.com

담임 목사 : 최 혁

담임 목사 : 서 건오

" 부활의 주님을
칭양 합니다 "

주일 예배 오전 11시
 교육부 주일 오전 11시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30분
 금요 기도회 저녁 8시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www.nbcch.org
 T. 213) 384-0305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사야 11:1-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육축들, 씨 가진 채소, 물속의 어류들,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특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모든 조건들을 삶의 바탕으로 활용하여서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하도록 복을 받았습니니다.

에덴동산에 마귀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마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성을 잃고 하나님이 금하신 계율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기질을 그대로 흉내낼 수밖에 없어서 그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파생시켜 주셔서 사람들만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어떤 짐승에게도 영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간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종교심리를 나타내고 여러 모양의 자기 섬김의 우상을 만들어 정신적 지주를 삼고 위로와 도움을 기도하는 이런 것을 신앙적 용어로 종교심리라합니다. 종교(宗敎)는 근본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도 자기 사명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의 성령이냐는 설명이 여기 2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영광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힘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께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끝에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약 8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예언이며 신약은 성취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30절 “나를 보내신이가 항상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느니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며 힘써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죄와 허물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줄 압니다. 그보다 큰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들어 쓰시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있다면 합동하여 유익하게 해결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사11:3~4)

입의 막대기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의미하며, 입술의 기운은 영의 기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형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체질이 땅 덩어리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지금은 오대양 육대주라하는데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려 오시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합니다.

가정에도 사탄이 역사하면 부부 사이에도 영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영적 소속이 다를 때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참고 견디며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끝내 승리함으로 악령을 물리칠 때 가정이 인가귀도(人家歸途)되어 성령 받으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림을 받는 곳이 가정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서 3년 반을 계신다고 하면 이 땅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환호와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한 믿음은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마귀의 소굴에 함께 어울려 지옥길에 빠져드는 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시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 믿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얽여져서 불의와 함께 마귀에 속하여 돌아가 버리고 또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어린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도 있더라고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밤에 재림하신다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년 대환난이 있는데 재림 전 삼년 반은 하나님 성도를 적그리스도에게 부치심으로 불신 세력에 의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 행패, 고통,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그다음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세상에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끝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그들을 살지 못하도록, 견디기 어렵게 예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망에 가둡니다. 그런 후 땅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한꺼번에 솟아서 뒤집어져 버리고 땅속에 있는 본래의 불덩어리가 터져 활화산이 올라와서 이 지구의 형체가 불에 녹아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13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왕국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세상의 악인들은 죽어서 음부와 사망에 가두어 놓습니다.

땅덩어리가 하늘과 함께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허물어지고 뒤집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고 온갖 짐승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한 세계에 함께 사는 데서로 절대로 해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도 없더라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 들어갈 자격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도 자기 사명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의 성령이냐는 설명이 여기 2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영광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힘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께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끝에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약 8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예언이며 신약은 성취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30절 “나를 보내신이가 항상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느니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며 힘써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죄와 허물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줄 압니다. 그보다 큰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들어 쓰시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있다면 합동하여 유익하게 해결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사11:3~4)

입의 막대기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의미하며, 입술의 기운은 영의 기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형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체질이 땅 덩어리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지금은 오대양 육대주라하는데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려 오시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합니다.

가정에도 사탄이 역사하면 부부 사이에도 영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영적 소속이 다를 때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참고 견디며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끝내 승리함으로 악령을 물리칠 때 가정이 인가귀도(人家歸途)되어 성령 받으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림을 받는 곳이 가정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서 3년 반을 계신다고 하면 이 땅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환호와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한 믿음은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마귀의 소굴에 함께 어울려 지옥길에 빠져드는 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시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 믿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얽여져서 불의와 함께 마귀에 속하여 돌아가 버리고 또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어린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도 있더라고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밤에 재림하신다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년 대환난이 있는데 재림 전 삼년 반은 하나님 성도를 적그리스도에게 부치심으로 불신 세력에 의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 행패, 고통,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그다음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세상에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끝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그들을 살지 못하도록, 견디기 어렵게 예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망에 가둡니다. 그런 후 땅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한꺼번에 솟아서 뒤집어져 버리고 땅속에 있는 본래의 불덩어리가 터져 활화산이 올라와서 이 지구의 형체가 불에 녹아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13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왕국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세상의 악인들은 죽어서 음부와 사망에 가두어 놓습니다.

땅덩어리가 하늘과 함께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허물어지고 뒤집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고 온갖 짐승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한 세계에 함께 사는 데서로 절대로 해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도 없더라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 들어갈 자격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고상사(한단고,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고상사(교조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im@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박사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설립 18년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신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I. 청빙요건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장로교회 교단 (PCUS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분
3.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포함)
2. 신앙고백서, 목회 소견서
3. 목사안수 증명서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5. 추천서(2통) 및 최근 설교DVD (2개) 가능하시면 구약 1편과 신약 1편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10일

IV. 제출처: 청빙위원장 (최맹모 장로)

우 편: Pastoral Nomination Committee
Love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8101 Senate Ave., Houston TX 77040
이메일: pncpch@gmail.com

V.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추가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별도로 통지할 수 있음.
3.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휴스턴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www.houstonlovechurch.org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I. 지원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혁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소정 양식)
2.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3.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5.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V. 기타:

1.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roman 받음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불수 있음.

뉴욕 새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벌레에서 나비가 되리라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범인에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알람이 엄마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내가 고통의 당사자인데 누가 먼저 저 인간을 용서합니까?” 범인이 사형을 당하고 난 후 이들이 지나서 알람이 어머니는 자살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벌레는 틀림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사람을 향한 열치를 잃어버린 벌레, 그리고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다시 베푸는 강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벌레를 작자는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벌레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가장 징그러운 애벌레는 우리 삶의 가까이 있었습니 다. 소나무, 포도나무, 사철나무, 감 나무, 장미, 백양목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에는 털이 송송 나있고, 열심히 나뭇잎을 파먹는 애벌레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고무줄과 나뭇가지로 손수 제작한 집계를 가지고 전교생이 산으로 송충이를 잡으러 간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연 속의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고, 껍질을 벗으면서 신기하게도 성충인 나비가 됩니다.

아름답게 너울너울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는 신선 같은 나비가 징그러운 애벌레 출신입니다. 죽은 것 같은 번데기가 된 후에 허물을 벗어버리고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장공을 자유롭게 나는 3차원적 존재가 됩니다. 벌레 인생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나비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만 나의 죄와 악이 처리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은 벌레인생이 아니라 나비인생입니다.

2014년의 부활절은 아름다운 나비 인생으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월호와 베델호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는 인재라고 말합니다. 조속히 선실에 있는 승객들을 구명선박을 통해 탈선만 시켰어도 이렇게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실이 더 안전하니 남아 있으라고 기내방송을 되풀이 되는 바람에 소위 구조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배와 승객들을 남겨 놓고,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선장의 판단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마지막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선장의 의무입니다.

풋볼코치에겐 운동장이 성전 (sanctuary)이며, 판사에게 법정이 성전이듯이 선장에겐 선박이 그의 성전입니다. 그의 전문적 지식과, 선박 구조의 이해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짐을 나

르는 화물선도 있고, 놀이기구에 수 영장까지 준비된 유람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팬텀비행기와 화포를 장치한 떠다니는 도시같은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배일까요? 저는 이번 침몰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구조선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식수와 따뜻한 음식,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구조선이었던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며 “살려달라”는 외침에 즉시로 손내밀어 구조해 낼 수 있는 구명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명선에 올라탄 자

원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춥고 어두운 바다 같은 세상에 따뜻한 사랑과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올리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바로 나를 건져올리셨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은 같이 ‘구명’하는 베델호를 타고 항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aster and Commander” 영화에 영국의 국운이 달려있는 해전에서 선장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This ship is England(이 배가 영국이다)!” 저는 베델호 항해를 선장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선포합니다. “이 베델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불을 밝힐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잘못된 방송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배와 베델호의 승객들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의 후원



제이슨 송 교장
세안약초중고등학교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런데 그게 맘대로 안된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꼭 부모의 문제만도 아니고, 아이의 문제만도 아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교육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필자가 교사로서 또 교장으로서는 부모를 상담하고 학생을 가르쳐 온 지 딱 25년이 되었다. 그 여정을 곰곰히 회고해 보면 정말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성공사례란 예외 (exception)이지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증언” 할 수 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일단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아이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성문제 없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잡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오손도손 사는 것이 거의 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쉽게 풀리지 않는다.

자식 문제를 접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취해야 할 부모의 자세는 무엇일까?

마가복음 5장 21, 22절에 등장하는 회당장 아이로의 경우 딸 아이에게 건강의 문제가 생겨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는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 주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때 아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아이로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고, 결국 “달리다굼”이라 명하여서 아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

여기서 우린 딸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아이로를 통해 먼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가 도움을 청한 것을 통해 부모로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같은 마가복음 7장 25-30절에 걸쳐 또 다른 부모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길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갑게 말씀하셨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찌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쌀쌀맞은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치 않고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끈기있게 주의 은혜를 구했다. 그때 주님은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라고 답하셨다.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주님이 이 이방여인의 믿음도 높이 보셨다 생각한다.

이 두 “부모”의 모습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해결책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며, 주의 은혜가 당장 가슴에 와 닿지 않더라도 낙심치 말고 자녀를 주의 손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자녀의 성장과 성공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첩경과 고비로 달려가 도움을 청한 것을 통해 지금 아이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리라 단순히 생각하지 못자.

지금 기도도 주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이 자녀의 앞길을 비추고 밝혀달라고 간구하자. 주의 손에 아이를 맡기자. 주께서 아이로와 이방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같이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흡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붓음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원래.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증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칼이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아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아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전의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용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파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셋트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정도 듣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이야기 2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첫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몸이 흡 성분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 성분이 결핍되었을때 각종 병에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약 80여가지의 흡 성분인 미네랄로 되어있습니다. 황토벽이 무너졌는데 약품으로 고친다는것은 황토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아서 잘 율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흡성분인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시간에 건강 장수에 관하여 귀, 코에서는 물론, 손 발 등에서 필요한 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에서 **피는 그 생명인즉** 이라고 하며 성경에서 피에대하여 약 60구절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면 두가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 살 것도 같습니다. 첫째로 몸에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고 두번째로는 혈액이 잘만 순환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혈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나쁜 음식, 또는 공해 등등으로 인하여 체내에 황산수소, 암모니아 수소를 만듭니다. 이것들이 탁한 피를 만드는데 이 독소를 제거 할 수 있는 것이 일산화 질소라고 합니다. 일산화 탄소가 아닌 일산화 질소입니다. 어떻게 일산화 질소가 깨끗한피를 만들까요? 육기 3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궁핍 배부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니 네가 어느나** 라고 읊에게 묻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면 죄진사람은 무섭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토지에는 번개가 번쩍번쩍 할때마다 공기중에 일산화질소가 발생되어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욕	201.953.0022	LA 사랑방	213.351.9552	뉴서울 호텔(팔달)	714.537.6619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버지니아	703.684.9199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시온약국	213.382.6485	시애틀	206.331.6655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 다운타운	213.798.3333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밸리	818.642.822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놀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우리약국	213.384.632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H 마트 내 H 헬스(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에스약국	323.733.778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H 마트 내 H 헬스(아바인)	949.251.0193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에나하임	714.469.5809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마켓 내 그린랜드 건강헬스	626.839.2868
부에나팍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가디나	714.351.0440	LA시온마켓마손약국	213.739.303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캐나다	714.636.2588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과테말라 한 어린이.

<갓스이미지> 빈곤 어린이 위한 사랑의 다리 놓다

1990년 추수감사절 행사로 시작 현재 전세계 500명 활동 작년 12월 굿네이버스 USA와 결연

작년 12월 굿네이버스 USA 홍보대사로 위촉된 갓스이미지(God's Image)의 대표 변용진 목사와 변은경 사모, 최고현 간사,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실장을 만나 설립 계기 및 사역 방향, 활동계획에 대해 들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단체로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으며 2007년에는 교육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국내, 북한 및 해외 38개 국가에서 187만명의 수혜자를 위한 구호활동 및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갓스이미지는 1990년에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된 어린이·청소년 찬양팀으로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 버지니아, 텍사스를 비롯해, 브라질 상파울로, 캐나다 밴쿠버 등에 지사를 두고 회원 500명이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정기공연을 통해 굿네이버스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프리카 차드 우물 설립 및 과테말라 아동초청에 협력했다.

-갓스이미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변은경 사모 : 1990년 추수감사절에 12명과 교회행사로 시작했다. 단순한 교회행사였는데 반응이 좋았다. 또 어린이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다.

-갓스이미지의 영성 훈련은?

변용진 목사 : 음악, 춤, 노래는 도구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만들기, 예수님의 문화 창조다. 노래와 춤이 다라면 이 사역을 목사나 사모가 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돕는 많은 교회가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다. 청소년들은 음악을 음식보다, 친구보다 더 좋아한다. 아이들

이 좋아하는 음악을 사용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돕는다.

갓스이미지는 매주 토요일에 모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꼭 예배를 드린다. 한 달에 한 두번 학생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3박 4일간 캠프를 열어 말씀, 기도 훈련을 하고 워크샵도 진행한다. 또케어 그룹을 통해 선배가 후배를 돌보며 영적 성장을 돕는다. 제자 훈련 교제로 영성 훈련을 할 수도 있으나 먼저된 이가 나중된 자를 이끌어 주며 삶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배들은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학업 성적도 대체로 우수하고 인성적인 면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후배들은 선배를 따르고 존경한다. 무대 위에서 30분 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자'고 말한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훈련하는데 어려움은?

변은경 사모 : 어머니들에게 '갓스이미지에 들어가면 사춘기를 그냥 지나간다고' 소문이 났다. 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빠진다. 이들이 '어디에 몰두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들은 하나님께 몰두하며 자신들이 지닌 에너지와 열정을 긍정적으로 발산해 사춘기에 겪는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한다. 또 보통 주말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갓스이미지의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에 머물다 그런 유혹을 받고,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갓스이미지의 강점은?

변은경 사모 : 커뮤니티의 결집력이

강하고 해외 여러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다. 세계 각지의 멤버를 만나 함께 맞춰 연합해 공연을 할 수 있기에 시야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무대에서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마음이 붕 뜰 수 있어서 걸음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른이 하는 것이라 가르치나 우리는 '너희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갓스이미지를 찾아오는 경우 중, 부모들이 이들의 찬양을 듣고 도전이 받고 오는 경우가 절반이다. 아이들의 맑은 영혼이 찬양하면 신선한 충격이 있기 때문이다. 어리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은 어른들은 흉내낼 수 없는 힘이 있다.

-올해 공연 계획은?

변용진 목사 : 올해는 7월 28일 모든 팀이 모여 축제를 연다. 6월 25일부터 2주간 한국에서 20곳에서 공연과 간증을 할 계획이다. 한국 투어 이후 7월 8일에는 태국을 방문해 일주일 단기 선교를 하며 공연, 아웃리치 활동을 한다. 또 태국 어린이들에게 춤과 찬양을 가르칠 시간을 갖고 팀을 세울 것이다. 정기공연은 8월 중순 La Mirada 극장에서 하며 이에 앞서 동양선교교회에서 시연한다.

-훈련은 어떻게 하나?

변은경 사모 : 갓스이미지 졸업생이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니어팀(유치원~초3년), 팀1(초4~8학년), 팀2(8학년~12학년), 대학생 팀으로 나눠 훈련한다. 한국 아이들 공연을 보면, 아이들에게 열정이 느껴지지 않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하는 느낌을 받는다. 아이들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갓스이미지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 마음에 울림이 없고 마음에 외닿지 않는 찬양이나 댄스는 그만둔다. 마음과 진심을 담아 찬양하고 표현하라고 가르친다. 크리스천 팀이라 하면 사람들



과테말라 단기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과테말라 어린이들을 안고 있는 한 봉사자(위) 과테말라의 한 어린이(아래)

이 우습게 본다. 우리는 그런 게 싫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수준 높고 더 멋있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다.

-굿네이버스 USA는?

김재학 실장 : 5년전에 네트워크와 모금을 위해 미국 지사를 설립해 아프리카 차드에 소망우물 220개, 소망 프리스쿨 3개를 건립을 도왔다. 또한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빈민 아동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USA는 중남미국가들의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0년 1월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아이티에 약 200호의 집과 학교 2동을 건설했으며 심리치로도 병행하고 있다. 빈곤 국가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학교도 가지 못하고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밝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미국 정부에서 공인된 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크레딧, 오바마 봉사사(PVSA)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경험을 쌓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교육이다.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하는 학생 참여 봉사활동에는 과테말라 자원봉사, 굿네이버스 클럽, 재능기부, 갓스이미지 등이 있다. 과테말라 자원봉사는 고등학생들이 1주일간 과테말라를 직접 방문해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활동이다. 현재 6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굿네이버스 클럽은 교내에서 다양한 홍보 및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또 음악, 비디오 촬영 등 자신이 지닌 여러가지 재능을 통해 봉사한다. 갓스이미지도 이러한 봉사활동 중 하나로 결연했다.

-미국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변은경 사모 : 딸 네명을 둔 엄마로서, 23년 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이 많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님 붙들고 산다면 행복할 수 있다.

변용진 목사 : 사실 아이들은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거의 부모의 문제다. 신앙을 지닌 많은 부모들조차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보다 성적, 학교,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나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가 주 목적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돈과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 문화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며 기도제목이다.

-'갓스이미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변용진 목사 : 공연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도와주고, 울스트리티 A를 받고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면 아빠 안마를 해드리고...이런 이상화된 모습이 아니다. 다른 학생들과 별 차이 없는 전형적인 보통의 10대 아이들이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를 닦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 안의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 별 볼일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메시지라 생각한다.

>굿네이버스USA 문의
PO Box 86755, Los Angeles, CA 90086. 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갓스이미지: 714-519-4901
Facebook.com/GodsImageLA
주디 한 기자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데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젊은이들을 위한 이스라엘전일정 단기선교(11박12일) \$999 + 항공료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699 + 항공료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7~11.26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0~11.17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7박8일) \$999 + 항공료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0~11.22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1,999 + 항공료

(※ 현지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8)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8회)

What time does your sister go to work everyday?
당신 누나는 매일 몇 시에 일하러 가나요?
She goes to work at 8:00 AM everyday.
그녀는 매일 8시에 일하러 갑니다.
Do you go to school every day?
당신은 매일 학교에 갑니까?

Yes, I do, 5 days a week.
네, 갑니다. 일주일에 5일을 갑니다.
What classes do you like most?
당신은 어떤 과목들을 좋아하십니까?
I like the Math and English classes.
나는 수학과 영어를 좋아합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8회)

The Son of God comes from heaven and is above all others. Everyone who comes from the earth belongs to the earth and speaks about earthly things.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is superior to all other people and he speaks about what he has seen and heard in heaven, and yet no one believes him.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오시고 모든 다

른 것들 위에 계시다. 땅에서 온 사람은 누구나 땅에 속하고 또 땅의 일들에 관하여 말한다. 하늘에서 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월등하여 하늘에서 그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7회)

Confucius lived for 73 years. He was a good teacher. We remember his teachings. "A superior person is modest in his speech, but exceeds in his action. Ability never catches up with the demand for it. It is still better that a diamond with a flaw than a pebble without. Remember no matter where you go, there you are."

공자는 73세를 살았다. 그는 좋은 교사였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기억한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언어에는 겸손하다. 그러나 행동과는 몹시 다르다. 그것이 요구하는만큼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한다. 흠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전혀 흠없는 조약돌보다 낫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켄 함, "미국 내 창조론 믿는 수백만 명 존재"

창조박물관 대표 켄 함 박사는 자신과 창세기의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이들을 켄 함이 잘못 묘사했다고 말했다. 함은 자신이 나이가 묘사하듯 광신적 비주류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16일 창조과학연구단체 앤스저인제너시스(Answers in Genesis, AIG)의 웹사이트에 "그는 나를 AIG 직원 및 지지자들이 이끄는 일종의 독재자로 묘사하려 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AIG를 일종의 광신적 비주류 집단으로 비취지게 했다. 이는 성경을 믿는 수천만 명의 미국 크리스천을 소외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썼다.

함은 2월에 창조박물관에서 진행된 논쟁에서 "켄 함의 창조론 모험", "켄 함의 흥수", "켄 함과 그의 추종자들"이라는 표현을 나이가 반복해서 썼다고 말했다. 젊은지구창조론(Young Earth Creationism)을 믿는 함은 "그가 계속해서 나를 비주류 집단의 리더로 묘사하려 하는 한 것외에는 그의 말에 담긴 의도를 짐작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그가 우리를 악마로 몰아가려 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미국 전체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수백만명이 있으며 그것이 내가 논쟁을 벌인 이유다"라고 썼다.

퓨리서치 센터가 2013년 1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60퍼센트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가 진화했다고 믿는 반면 33퍼센트는 진화를 부정하며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창조됐다고 믿는다. 2011년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의 46퍼센트는 지구의 연대가 대략 6천년 정도라고 믿으나 43퍼센트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함은 최근 회의주의 과학잡지 The Committee for Skeptical Inquiry 2014년 5, 6월 호에 실린 빌 나이의 기사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과학 옹호단체 천문우주학회(The Planetary Society)의 빌 나이 대표는 자신이 함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인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드러낼 수 있기에 이 토론을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에 관해 나이는 "그것은 켄 함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켄터키, 교육, 미국에 그러므로 인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드러낼 기회였음이 확실하다. 이는전혀 과장이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토론이 끝난 후 호텔에서 돌아가는 길에 자신과 동행한 함의 안전요원 2명을 "운동 경기에서 심하게 언어 맞은 팀 처럼 보이는", "완전히 암울한"을 표정으로 묘사했다.

함은 이에 "이처럼 유치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게 유감스럽다"며 "AIG의 공공 안전요원들 대부분은 그날 밤 시설 전체를 감시하느라 논쟁을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후에 비디오를 통해서야 이 논쟁을 봤다"고 반박했다.

누가 논쟁에서 이겼는가에 대해, 함은 이 이벤트는 창조와 진화 문제에 관해 전세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하며 대략 총 1천 4백만 명이 이 논쟁을 봤을 거라 추정했다. 또 진화생물학자이며 무신론가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거절했음에도 나이는 이 주제에 관한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음을 언급했다.

2013년 10월 인터뷰에서 도킨스는 "그들이 진짜 과학자들과 한 연단 위에 선다면 그것 자체가 과학자들에 필적할 만한 참된 주장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원한다"며 토론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이 진화 대 창조 토론은 www.debate-live.org에서 볼 수 있다.

'천국은 진짜 있다' 부활절 앞두고 美 전역서 개봉

사람에 거의 이른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한 소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Heaven Is for Real(천국은 진짜 있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영화는 2010년 베스트셀러인 동명의 책을 각색해서 제작, 이번 부활주일을 앞둔 16일 미 전역에서 개봉됐다. 2003년 당시 4세였던 소년 콜튼 버포는 급성 맹장 수술을 받으며 사망 직전까지 갔고, 이때 천국을 방문해 예수를 만나고 이미 사망한 자신의 친척들도 천국에서 만났다고 한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콜튼은 목회자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콜튼은 "사망선고를 받았을 때,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병원의 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를 봤으며, 천국에서 누나를 만났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아버지가 기도한 사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고, 콜튼의 누나는 유산되었기 때문에 콜튼은 자신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전에 들은 적이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믿게 됐고, 그 증언을 담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신앙적 소비자(Faith Driven Consumer)라는 단체는 이 영화에 대한 소비자 평점을

5점 만점에 4점을 주었다. 이 영화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으며 예수를 알게 되는지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불신자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찬성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영화는 신앙적·성경적 연관성 항목에서는 5점 만점에 3.5점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에서 파생될 수 있는 보편 구원론, 회개와 예수에 대한 연관성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영화가 무리 없는 방법으로 희망과 용기, 신앙을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기독교 방송국의 PD이면서 3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스티브 윌버그 씨는, 이 영화에 대해 "죽은 자들이 천국에 이미 가 있다는 잘못된 관점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먼저 사망한 친척들이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천국이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그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hopen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7,27,37,47 수로성 배움, 현재기 수로성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전공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 온몸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청 (정부 배넛넷 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향선교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mail. isaacdeu@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와기독교의정신,성경적요리노니,민안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말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중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오전11:00 Youth
오전 6:0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필문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우고 이면24시간복음전개,이민가정지원센터,선교영양운동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ganachurch.homp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목회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p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전 5:30(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가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부활절 새벽 타임스퀘어에서 선포된 부활 메시지

뉴욕정원교회 타임스퀘어-브로드웨이 선상서 예배드려



뉴욕정원교회가 부활절 새벽 타임스퀘어 광장을 찾아 부활을 선포했다.

맨하탄 특수목회를 이끌고 있는 뉴욕정원교회(담임 주효식 목사)가 부활절인 20일 새벽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과 브로드웨이 선상을 찾아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해 주목된다.

뉴욕정원교회는 20일 오전 6시 타임스퀘어 광장과 브로드웨이 선상의 극장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고 거리 찬양과 기도를 진행했다.

뉴욕정원교회가 위치한 곳은 맨하탄32가로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불과 50미터 떨어진 맨하탄 중심지다. 교회가 뉴욕의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이번 타임스퀘어 부활절예배 등 역동적인

복음전파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효식 목사는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서 '갈릴리에서 진도 앞바다에까지'(마28: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효식 목사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갈릴리로 먼저 가셨던 처럼,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진도를 향할 것"이라면서 비통에 빠진 진도에도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기를 소망했다.

뉴욕정원교회는 타임스퀘어에서 예배를 마친 후 근방 브로드웨이 선상에 있는 극장을 찾아 거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전파했다.

김대원 기자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 2014년 장학생 모집중

미전역에서 5월 18일까지 접수, 수여식은 6월 14일 버지니아장로교회



2013년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이사장 박상근 장로)이 차세대 신앙교육 사역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2세 신앙교육에 사명이 투철한 신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학금은 미전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입교인(세례 또는 침례 받은 자)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주정부에서 인정된 신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중인 자 ▲2세 신앙교육과 사역에 헌신할 자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유자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사진 첨부) ▲추천서 2통(담임목사 외 1인), 영문 혹은 한글 추천서 ▲성적증명서(최종학교 혹은 재학중인 학교) ▲신앙간증서(영문)

2009년부터는 영어권 사역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이민 2세들의 교육에 더욱더 힘쓰고자 영어권 사역자로 장학금 지급을 제한했으며, 2세 교육이 신앙있는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이라는 사실에 남심 이사 및 임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상근 이사장은 "미주한인사회의 역사는 길어지는데 차세대들을 신앙적으로 길러줄 영어권 사역자들을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본 장학재단은 특별히 영어권 차세대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를 통해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육, 우리들의 미래인 2세들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사진 첨부) ▲추천서 2통(담임목사 외 1인), 영문 혹은 한글 추천서 ▲성적증명서(최종학교 혹은 재학중인 학교) ▲신앙간증서(영문) ▲Form W-2(if applicable) 등이다. 신청서 양식은 장학재단 웹사이트(www.sfwcw.org) 자료실(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장학금 신청 및 접수는 4월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5월 17일까지 이메일로만 가능하다. 5월 말 심사를 거쳐 6월 초에 발표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는 장학금을 높여,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500~2,000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은 1981년 혼탁하고 부패되어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민 1.5세 2세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절실함을 깨달은 어머니들이 힘을 모아 청소년 교육에 사명을 갖고 공부하는 신학(원)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함께 활력을 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33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현재까지 미전역에 흩어져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총 34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은 6월 14일(토) 오후 5시 알렉산드리아 소재 버지니아장로교회(담임 민철기 목사, 6021 Franconia Road, Alexandria, VA 22310)에서 진행되며, 후원음악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문의 : 703-941-7395

(이사장 박상근)

조요한 기자

이 시대의 참상,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자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연수 목사) 주최 부활주일 연합 새벽예배가 아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와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 각각 드러졌다.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한인 사회를 슬픔 속에 잠기게 한 가운데 드러진 이날 예배에서 회장 임연수 목사는 "승객을 구조하고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떤 개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다.

다른 길은 없다.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 뿐이다"라고 전했다.

임연수 목사는 또 "예수의 부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교회의 시작이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로 인해 모였고 기도했다. 부활 신앙으로 순교도 피하지 않았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이유가 없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자. 진도와 기도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자"고 당부했다.

앤더슨 김 기자

시애틀 한인교회 연합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자”



시애틀 한인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가 촛불을 점화하고 있다.

시애틀 한인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는 부활절을 맞아 묵회 서신을 발표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종용했다.

연합회 대표들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단순한 기독교의 절기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이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본국 세월호 침몰 대참사에 애도를 나타내면서 두려움과 슬픔, 절망에 빠진 이들을 향해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최인근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주간에 본국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애통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의 위로를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결코 기독교인들만의 허황된 소망이 아니다”라고 힘있게 말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소망, 위로를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다하자”고 전했다.

시애틀 한인목사회 김철근 목사는 “주

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웨드렐웨이 교회연합회 및 목사회 원 호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라며 “오늘도 성령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해하는 역사가 교인사회 가운데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타코마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이형석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은혜를 믿는 자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신다”며 “주님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안식과 쉼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림피아 목회자 연합회 회장 소은일 목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라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과 부활에 동참하자”고 전했다.

조요한 기자

하은교회, 부활절 맞아 27명 새 일꾼 세위

장로 은퇴 및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식 열어



하은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27명의 새일꾼을 세우는 임직예배를 드렸다.

하은교회(담임 고훈 목사)가 부활절을 맞아 20일 플러스 JHS189에서 장로 은퇴식 및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식을 열고 27명의 새 일꾼을 세웠다.

이날 장로직에서 물러난 이들은 강광웅, 김양득, 서상갑, 오윤식 등 4명이며, 장로장임은 박순승, 조일구, 지호웅, 허봉 등 4명, 집사취임은 송현옥, 양창열, 이정희, 이해광 등 4명, 집사안수는 김영길, 김태현, 이덕은, 황도경 등 4명, 권사취임은 강연구, 김맹두리, 김정혜, 박희정, 송영자, 신윤원, 심계숙, 우재희, 이강희, 장순자, 장옥영, 조미숙, 최상숙, 허숙희, 허혜경 등 13명이다.

4명의 장로가 은퇴하고 27명의 새로운 임직이 세워지는 대규모 교회인사는 고훈 목사가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하은교회는 고훈 목사가 2006년 7월 부임한 이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임직예배도 성도들과 하객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JHS189 강당을 빌려서 드렸다. 이날 안수위원으로는 김기석 목사(좋은이웃교회), 민상석 목사(동양제일교회), 이충남 목사(하은교회 원로), 조정철 목사(블루벨장로교회 원로) 등이 참여했으며 1부 예배는 고훈 목사의 인도로 박승영 장로 기도, 연합찬양대 찬양, 이충남 목사 설교, 서상갑 장로 봉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충남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고전 15:9-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금까지 하은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왔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은혜 가운데 임직을 맡은 이들에게 더욱 충성할 것을 권면했다.

2부 임직식은 고훈 목사의 집례로 윤철혁 장로 임직자 추천, 서약 및 안수기도, 고

훈 목사 선포, 임직패 및 공로패 증정, 김기석 목사 권면, 민상석 목사 축사, 뉴욕말일 여성합창단 축하, 오윤식 장로 은퇴답사, 지호웅 장로 임직답사, 조정철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기석 목사는 임직자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를 바란다. 주일성수, 십일조, 봉사활동 등을 잘해왔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 헌신, 물질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는 주체가 됐음을 알고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상석 목사는 축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실 때 뒀던 나귀는 비록 볼품없는 나귀였지만 생애 처음으로 자가 태운 사람이 메시아인 예수님이었던 영광을 얻게 됐다”면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관직이나 영광스러운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윤식 장로는 은퇴답사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를 믿어 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미약한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웅 장로 임직답사에서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낀다”면서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다. 충성스러운 임직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미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대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달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옥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만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금요일아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6: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는 성도의 삶 선결과 구원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방익수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김삼도 목사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최상준 담임목사

엘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 인터네셔널 찬양팀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6: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사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해를 넘어는 사랑과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유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는 교제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00 (분당)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목요성명집회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45 (월-금)
청년회 3부: 오후 1:30

주희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목장예배 오후 2:30 목요 성령학교 오후 7:30
월요일 신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인준석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훈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방고, 세탁장, 교통편리
T. 213.327.4710

“사망 이기신 주님, 진도 앞바다에도 소망 주실 것”

1만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설교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

“201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20일 오전 5시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1만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새벽을 깨우며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13)’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예배는 지난 2010년 부활절연합예배가 파행을 겪기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화합과 기쁨의 대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에 예배 직전 양병희 목사(예장백석 전 총회장) 인도로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돼,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을 염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대회사나 축사, 설교에서도 세월호 관련 언급이 이어졌으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했다.

예배는 식전행사 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말씀의 선포’, ‘성찬’, ‘세상으로 나아감’의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서는 홍호수 목사(예장대신 총무) 사회로 장종현 상임대표대회장(예장백석 총회장)의 대회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 등이 있었다.

장종현 목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던 세리를 불쌍히 여겨 품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이제 부활의 새 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장 목사는 “오늘의 절망적인 얘기를 소망과 회복의 찬가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한다”며 “이제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이래 한국교회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왔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화해와 연합의 예배를 드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국민들과 함께 희망과 꿈을 열어가갈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열어가 달라”며 “특히 지금 북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김동업 예장통합 총회장 인도로 예배가 시작됐다. 첫 예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에서는 순서자들의 입장과 예배로의 부름, 조일래 기성 총회장의 ‘목회기도’, 나세웅 예성 총회장과 이정균 한장총증경회장의 ‘죄의 고백’, 김신웅 목사(심정동교회)의 ‘용서의 말씀’ 등이 마련됐다. 특히 ‘죄의 고백’에서는 나세웅 총회장 등이 무릎을 꿇은 채 기도문을 낭독한 후 웃을 짓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두 번째 ‘말씀의 선포’ 예전에서는 전수현 학생(행복한교회), 김득중 성도(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이태현 성도(사랑방마을공제회동조합) 등 ‘약자’를 상징하는 평신도들이 성경봉독을 맡았으며, 연세중앙교회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후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설교했다.

김장환 목사는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 세 가지 있다면 예수님의 탄

생과 죽음, 부활”이라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 탄생과 죽음을 완성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며 “갈보리 십자가를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의 모든 비극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라지더라도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여 무의미한 표시에 불과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죽음의 권세는 만유를 무덤 속으로 던져 버리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는다”며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진도 앞바다에 있는 저 분들에게도 산 소망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어느 기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를 찾아와 부활을 믿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그레함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30분간 대화했다’고 하셨다”며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레함 목사님 못지 않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후 평강과 성령, 사회의 특권과 선교의 사명, 대속과 부활의 확신이라는 다섯 가지 선물을 주셨다”며 “여러분도 이 모든 선물을 흠뻑 받으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 목사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난 50년간 전해 왔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목사로서 생을 마칠 것”이라며 “한국교회여, 다시 살아나자”고 말했다. 북한 성도들이여, 부활의 기쁨을 다시 맛볼지어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했다.

설교 후에는 세계 연약의 갱신(강진문 예장한영 전 총회장)과 신앙인의 기도가 진행됐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차경애 장로(한국YWCA연합회)는 ‘소



‘2014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승열 목사(예장개혁 전 총회장)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으며, 조현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함께 준비했다는 ‘2014년 부활절 남북공동 기도문’을 낭독했다.

세 번째 ‘성찬’ 예전에서는 이용호 목사(예장고신 전 총회장)의 집례로 1만여 명의 성도들은 역사랍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후 떡과 잔을 함께 나눴다. 3부에서는 이강섭 장로(예장대신 전 부총회장)의 봉헌기도, 성찬으로의 초대, 제정사, 찬송, 성령임재의 기도, 주기도문, 분별례와 분급, 성찬 후 감사기도 등이 마련됐다. 이 예배 헌금은 이날 ‘장애인의 날(20일)’인 점을 감안해 장애우 돕기를 비롯,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생계 지원과 북한 어린이 돕기, 동자동 쪽방촌 협동조합 등 네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상으로 나아감’에서는 성도의 교제, 2014년 부활절 선언문 낭독, 파송의 찬송, 위탁과 파송, 축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정서영 목사(예장통합개혁 총회장)가 발표한 ‘2014년 부활절 선언문’에는 “2014년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하고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며 “한국교회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교회의 힘은 크고 높은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부터 나오며, 지

금은 성장 일변도로 거침없이 달려온 한국교회가 경건과 절제를 통한 숨고르기를 할 때, 교회개혁은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내어주는 세상의 빵이 되어야 하고, 이는 다양한 봉사활동, 인권의 옹호, 정의의 실천, 사회제도의 개혁, 창조세계의 보전 등 공정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며 “전쟁이나 대결은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행위이고, 한반도의 불화는 전쟁세대의 참혹한 경험에 견줄 만큼 힘겹게 삶의 분투를 이어가는 젊은이들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설 것이므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졌듯 교회를 통하여 남과 북의 평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활절 선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여기에 있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는 선포와 함께 끝을 맺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한 예배는, 박종덕 한국기독교 사령관의 축도와 함께 밝은 아침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다. 이날 연세대에서 진행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외에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춘천·전주·여수·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됐다. 이대용 기자

기하성 여의도-서대문 양측, 부활절연합예배 드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측과 서대문측이 양 교단 통합을 염원하며 20일 오후 5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2014 부활절 기하성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개회사를 전한 박성배 목사는 “사탄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

자 제자들은 부활을 확신하고 이를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사로야 나오라”(요 11:38-44)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축복”이라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희망과 꿈을 주신다”고 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성령충만한 기하성 교단의 교인으로서, 모든 결박

을 풀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죽음, 고통, 미움, 죄, 탐욕의 냄새가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설교 후에는 이재창·염기호 증경총회장장과 고충진·김봉준·함동근 부총회장이 각각 “국가와 민족 지도자를 위하여”,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통합총회장 조용기 목사님과 총회원들을

위하여”, “교단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고, 최성규·정원희 증경총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 밖의 순서로는 엄진영 총무가 사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박종근 장로회장이 대표기도, 박장근 부총회장이 성경봉독, 최길학 부총회장이 헌금,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장근 부목사가 광고, 박광수 증경총회장이 축도했다.

한편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최근 임원회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서대문측과 드리고 양 교단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것과 제 63회 정기총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및 둔내종합체육공원에서 ‘오직 성령으로(속 4:6)’를 주제로 개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류재광 기자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KOBE PEARL LAS VEGAS

무조건 현금회전 대박세일!!!

최대할인
80% +10%
더세일!

고베펄 상설 매장 오픈 기념 행사퍼레이드

“비싼 진주보석은 가라!!”

가자! 벌몬 갤러리아 마켓
고베펄 매장으로 가자!!

4월 9일(수) - 4월 30일(수)까지
고베펄 벌몬 갤러리아 매장
(5가와 벌몬 갤러리아 마켓내)

일본공법 한국세공 진주제품 5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이면서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4000여점의 진주보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월 1일(목) - 2일(금)까지 2일간
엘에이 한인타운
로텍스호텔 2층 연회장

5월 3일 (토) 단하루
가든그로브
라마다호텔 2층 연회장

300불
이상 구매시
선착순증정

행운의
복돼지 증정

(.925 Silver 정품 3돈)

★ 수량의 한정상 1인 1팀 복돼지 1개 증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본산 인공 핵진주 \$88 컬렉션
무조건 원가 대행진

일본산 인공 핵진주?는 진주가루와 대왕조개껍데를 분쇄하여 진주원형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남양진주 색상을 입혀준 일본에서 제작되는 프리미엄 인공진주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원형모양으로 흠이 없는 게 장점으로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핵진주 브로치
Shall Pearl Brooch
\$399 ▶ \$159 **\$88**

핵진주 반지
Shall Pearl Ring
\$399 ▶ \$159 **\$88**

핵진주 귀걸이
Shall Pearl Earring
\$399 ▶ \$159 **\$88**

핵진주 펜던트
Shall Pearl Pendant
\$299 ▶ \$159 **\$88**

88불 인공핵진주 컬렉션 제품은 수량과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서두르세요! 실버세팅 제품입니다.

고베펄 어머니날 맞이 진주보석쇼
HAPPY MOTHER'S DAY

헬렌 아이코
아코야진주
특별기획전

혼수예단용으로 사랑받는
명품 아코야 Akoya 진주 헬렌아이코
컬렉션이 대량 전시판매됩니다.

고베펄 천연양식 진주목걸이
파격 원가 처리 최저가 판매

일본공법
한국세공



6.5-7.5밀리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499 ▶ \$99 ▶ **\$88**부터



6.5-7.5밀리 30조 한정
2줄짜리 Double Strands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1599 ▶ \$599 ▶ **\$188**부터



7-8밀리 (14K 장식)
▶ \$999 ▶ \$199 ▶ **\$188**부터

8-9밀리 (14K 장식)
▶ \$1299 ▶ \$299 ▶ **\$258**부터

9-10밀리 (14K 장식)
▶ \$1499 ▶ \$399 ▶ **\$358**부터

★ 흰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제품 기준가격입니다. 길이나 색상에 따라
추가가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고베펄 진주목걸이는 일본공법 / 한국세공 제품입니다.
★ 모든 고베펄 제품은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서가 첨부됩니다.

프리미엄 고베펄 자석팔찌

Magnetic Bracelet
磁氣ブレスレット

강력한 고베펄만의 명품 자석의 효능!
타 제품과 비교하지 마세요.

\$499

"어머니날 최고의 효도선물"

다양한
디자인

남양진주 | 천연 흥산호 | 아코야진주 | 해수진주 | 담수진주 | 자수정 | 유색보석

고베펄 페이스북 LIKE 누르고 선물도 받자!!
FACEBOOK.COM/KOBEPEARL

고베펄은 고객님들께 정직한 판매와 감동의 서비스를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고베펄은 고객님들로부터 중고 보석제품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가공 및
Recondition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님들께 최상의 신제품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KOBE PEARL LAS VEGAS

진주전문회사 고베펄 창립 10주년
라스베가스 본점
953 E. Sahara Ave #E34B Las Vegas, NV 89104

문의 전화 **213.308.6326**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점
440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20

부활절 이후 21일간을 ‘공동기도기간’ 으로 선포

NCKK 회원교단장 회의서 결정... “비기독교인·구조대원도 위로해야”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19일 오전 성공회 서울주교좌좌성당 주교관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한 NCKK 회원교단장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가장 강조한 점은, 엄청난 비극으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교회가 자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이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들은 부활주일 이후인 21일부터 가정주일인 5월 11일까지를 ‘슬픔을 당한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 공동 기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미안

합니다”라는 제호로 헌수막·상징물을 내걸고, 각 교회가 기도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심시일반해 현장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현재 안산 지역 교회들이 월·화·목·금 진행하고 있는 촛불기도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교계가 우리 사회를 잘 돌보지 못한 점을 반성하는 공동기도문과, 어린 생명들이 더 이상 허무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20일) 열리는 한국

교회 부활절연합예배에 앞서 특별기도회도 진행한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NCKK 박종덕 회장(구세군 사령관)과 김영주 총무 및 정성진 서기, 예방통합 김동업 총회장, 기갑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성공회 김근상 의장주교, 기장 김영진 장로부총회장, 루터회 김철환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는 부활절 이후 각 연회가 열리는데, 감동님들께 이 기간 애도의 시간을 가져 달라고 부탁드렸다”며 “특히 제가 감독으로 있는 경기연회의 경우 원래 회의 장소가 안산으로 예정돼 축제와 같은 연회를 기획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으나, 현재 안산이 애도 분위기여서 수원으로 긴급히 옮겼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제 관할 지역에 있는 지방 중 4개 지방이 이번 사건에 해당되고 실종자 명단에 16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일이 굉장히 피부모 가깝게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안산에 있다. 안산에서 기도하고 대책위를 세우고 촛불집회를

인도하려 한다”고 했다.

김근상 의장주교는 “성공회의 경우 예산상 부활절이 축제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전 성직자가 안식차 연수를 떠나는데, 일체의 행사를 중지시키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했다”며 “서울주교좌성당 앞 평화의 기도처도 추모처로 바꾸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꽃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도 현장에 다녀왔다는 통합 김동업 총회장은 “지금 현장은 너무나 큰 허탈과 원망에 휩싸여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심정”이라며 “우리가 마치 기독교인만 챙기는 듯한 모습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처와 언론 보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부 발표가 오락가락하는 등의 문제는 시정돼야 하며, 언론들도 지나친 취재 열기로 인해 오보를 내거나 충격에 빠진 피해자들을 불렀고 무리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근상 주교는 “구조하는 이

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 신앙인으로서, 혹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좋은 모습을 찾아내 감동을 줘야지, 모두 나쁘다고 하면 그 책임은 또 다시 우리가 다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각 교회가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부활절 헌금을 이번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 현장 구조는 진도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할 것, NCKK가 사고 지역의 교회와 함께 추모예배를 드릴 것 등이 제시됐다.

김 총회장은 현장 상황에 대해 “체육관과 바닷가 두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관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지 않지만 바닷가 쪽은 일손이 급히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기독교 연합봉사단이 그곳에서 활동 중인데 곧 철수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곳을 인수받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에 교단장들은 현장의 필요를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류재광 기자

“수많은 젊은이들의 작은 십자가, 골고다에서 포개지길”

부활절 맞은 한국교회 강단 세월호 사고에 위로와 소망 전해

부활주일이자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처음 맞은 주일이었던 20일,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깊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간절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는 설교에 앞서 “지난 주간 우리나라 전체를 어둡게 만든 사고가 있었다.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됐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모두 부활을 함께 맞이해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가족들 상처가 오죽 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설교 전 2-3분 동안 그들의 가족들과 영혼과 전체 국민들에게 부활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이번 사건으로 뜨거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며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어두

운 곳을 밝히시고 슬픔과 슬픔을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그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사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금년 부활절을 맞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주님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시고, 평강의 아침을 허락하셨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부활로 말미암아 일대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는 새로운 소망”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받은 모범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간들이 풀지 못하는 가장 난해하고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미래, 운명과 죽음의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도 “나를 전 세월호 침몰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했고, 선체는 아직까지도 바다 속에 침몰 상태 그대로 있다”며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한 마음으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조 작업이

조속하고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만약 아직까지 선체 속에 생존자가 있다면 꼭 산 채로 구조될 수 있기를, 그리고 구조대원들 가운데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이재철 목사는 이어진 부활절 설교에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련하고 슬프고 측은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부활보다 더 큰 위로로는 없다”며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우리가 죄와 죽음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고생과 슬픔의 십자가가 찬란한 부활을 위한 전 주곡으로 승화되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며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주님 밖에서 지는 세상의 십자가는 수고와 슬픔과 고생의 십자가, 끝내 허망한 죽음의 십자가로 마침표를 찍을 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지는 십자가는 반

드시 새로운 생명과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20일 주일에 설교를 통해 “부활절을 앞두고 이 나라와 사회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다. 수난주간이 정말 수난으로 꼭 졌다”며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며 부모들은, 또 선생님들과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을 졸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죽음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을 눈앞에 두는 것,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아프다”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 작은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포개졌으면 한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요 20:19~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2014년 부활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것 같다”며 “16일 진도에서 침몰된 세월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대한민국 전

체가 침몰한 세월호의 작은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 속에서 부활절을 맞았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뒤 부활절 아침도 오늘과 비슷했을 것이다. 안타깝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환을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중에 세월호에 갇혀 있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다. 물이 가슴과 턱에까지 차오르지만,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생각하며 계속 울었다”며 “뉘어도 계속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했다. 숨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순간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최후를 맞이했을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했다”고 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시는데, 갈릴리는 저주와 비난, 배척과 멸시, 조롱과 모욕을 받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슬픈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이스라엘과 교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필찬 | 새물결플러스 | 450쪽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 바라본 성경의 약속과 성취’를 주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제시한다. 요한계시록 전문가인 저자는 함께 나온 <백투 예루살렘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와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혈통적 이스라엘 회복 주장의 맹점을 파헤친다.



간추린 신약신학
토마스 R. 슈라이너 | CLC | 440쪽

2011년 부흥과개혁사에서 나온 자신의 1120쪽 분량 <신약신학>을 쉽게 간추려 썼다. 저자는 신약 각 권은 다른 상황과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동일한 중심 주제가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전체를 조망하면서 신약신학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시한다.



날마다 새롭게
코리 텐 북 | 터치북스 | 400쪽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 수용소로 끌려가 역경의 시간을 보낸 코리 텐 북이 노년에 집필한 이 책은 평생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삶과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365일 묵상집으로,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인인 우리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외침을 잘 녹여냈다.



성경 영어 암송 훈련
박광희 외 | 사람IN | 280쪽

출판사의 ‘스피킹이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는 영어암송 훈련’의 성경판. NIV 키즈 버전 NIRV에 수록된 쉬운 본문으로 ‘영어로 암송하고 싶은 200문장’을 뽑아냈으며, 개역개정판 한글성경을 함께 수록했다. 초보 학습자들을 위해 빈칸 채우기, 의미 덩어리로 끊어읽기 등도 실었다.



REVIEW

존 번연과 허드슨 테일러부터 오스왈드 챔버스까지... <증인>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그때 ...”

“이 책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더욱 풍성한 삶으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교리로 만들어 자세히 설명하거나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할 뿐이다.”
<증인>은 휘튼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많은 신앙서적들을 집필한 레이몬드 어드먼이, 동시대를 살았던(19-20세기 존 번연 제외) ‘믿음의 거인들’ 19인의 회심과 삶을 엮은 책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책은 <크리스천 라이프(Christian Life)>지에 연재했던 것으로, 1960년에 책으로 출간됐다. 원제 ‘They Found the Secret’

이 책은 한국에서 20년 전인 1994년 처음 발행된 작품의 개정판이다.
허드슨 테일러, 앤드류 머레이, 드와이트 무디, 오스왈드 챔버스, 에이미 카마이클처럼 잘 알려진 이들부터, 뛰어난 복음전도자였던 새뮤얼 브랭글 구세군 사령관이나 인도 선교사이자 기도의 사람으로 불린 존 하이드, <완전한 사랑>의 저자 존 우드처럼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도 있다.
저자는 “수 세기 동안 많은 증인이 있었지만, 나는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단지 몇 사람만 골랐다”며 그들의 체험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들은 구주를 믿고 여전히 집

을 지고 어쩔 줄 모른 채 불성실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며, 늘 더 좋은 방법만 찾으려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그들은 마음 속 저 밀바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구주를 만나, 마음으로 완전히 굴복하게 됐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성령’임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옛 삶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됐다.
저자는 ‘회심의 전후’를 과장되지 않게 전하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비교적 최근 인물들 위주여서 친근감을 높인다.
“나는 일부러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양한 여러 유형의 인물



증인 | 레이몬드 어드먼 | 생명의말씀사 | 248쪽

을 골랐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들 중에는 옛날 사람도 있고, 우리와 동시대를 산 사람도 있다. 목사도 평신도도 있다. 신비주의자도 있고

현실주의자도 있으며, 남성도 여성도 있다. 그들이 역경 속에서 체험한 것은 다르지만,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일치한다.”
하지만 저자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체험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구절은 없다. 오히려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한다”며 “간절히 바라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고 말하면서 균형을 강조한다.
변화된 삶의 비밀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변화된 삶이란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다.

이대웅 기자

<p>세종 송보감</p> <p>“충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p>	<p>뇌보감 골드</p> <p>“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p>	<p>高麗발효삼</p> <p>“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액츠 생명연구 개발”</p>	<p>세종 요로청보감</p> <p>“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p>	<p>퍼스트레이디</p> <p>“여성건강, 생리활성” “불가리아장미오일 캡슐”</p>
--	--	--	--	--

Biotech SEJONGBIOTECH, INC 문의 :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

판매처
 코리아타운 세종바이오텍 엘에이저사 (월서와 버질길 복음방송2층, 213-383-8899)
 가주건강종합화점 (한남체인건너편 천홍산상업, 213-388-1234)
 비타민 아울렛 (아사미켓 건너편, 213-382-1252) 발론캘리포니아와마켓내213-388-4100
 글렌데일 한국약국 (글렌데일 한국마켓 내, 818-637-7708)
 세리토스 웰빙건강&선물 (세리토스 시몬마켓내, 562-403-0282)
 부에나팍 네이처영양센터 (부에나팍 한남체인내, 714-690-0120)
 샌디에고 굿모닝약국 (레이시온로드 교차로 스타벅스커피상업내, 858-268-1660)
 가든그로브 네처건강센터(9852가든그로브빌딩 3층, 714-539-3763)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통증
- 체중감소
- 정력감퇴
- 미용침
- 알러지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 불임증(자궁후,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충치예방 2달분 \$60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고난과 불행’ 앞에 설교해야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

재난과 살인 등에 대한 복음의 응답... 오직 ‘십자가’ 뿐

임신 초기 유산과 낙태, 자녀의 죽음부터 교통사고로, 암으로, 살인으로 죽은 성도들, 자살과 유명 인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9·11 테러까지... 갖가지 ‘불행’을 당하는 이들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 목회자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지평서원)〉는 그 원제목 ‘The Hardest Sermons You’ll Ever Have to Preach’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설교를 준비해야만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브라이언 채플, 존 파이퍼, 마이클 호튼, 팀 켈러 등 개혁주의 선배 목회자들이 내놓은 ‘선물’이다. 목회자가 아니라도, 각각의 사례별 설교를 읽으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팀 켈러(Tim Keller) 목사는 2001년 9·11 테러 5일 후인 9월 16일 주일 설교에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재난에 빚어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 켈러 목사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한 질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진리와 눈물, 분노와 은혜를 통해 그 불행의 난해를 헤쳐나가시고 있다면서 그분께로 반드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놀라운 것은,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 목사도 같은 날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다. 채플 목사는 충

격적인 사건을 겪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눈물’을 주제로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과, 인간의 비극을 사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존 파이퍼 목사는 아직 신생아인 자녀를 떠나보낸 성도의 장례식 설교를 맡았다. 그는 신생아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한 갓난아기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파이퍼 목사는 짧지만 울림이 있는 이 설교(창 1:26-27)에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었고, 당신의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당신의 아들이다”며 “나는 그가 지금 정죄받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지만, 더 확실히 밝히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자요 지혜롭고 선하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았던 20분은 사실상 우리 인생의 길이와 다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으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신학교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한 유학생의 장례식에 선 브라이언 채플 목사는, 이 끔찍한 불행이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
브라이언채플 엮음 | 생명의말씀사 | 256쪽

‘새 벽별’(계 22:16)을 주제로 채플 목사는 “밤이 잠시 동안 맹렬히 계속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둠을 향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잠시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겠지만 그가 주님의 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기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진 않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운다.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였으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친구의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 교수는 용기를 본문으로 신학적 성찰에서 시작해 개인적 공감으로 나아가 결국 부활의 소망에까지 역동적으로 다다른다. 그는 하나님이나 그 친구를 판단하기 위해 장례식에 모인 게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비록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읊과 바울처럼 그 친구도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알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가장 절친한 친구를 잃었다 라도,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를 잃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이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고 위로한다.

책을 엮은 미 일리노이주 그레이스장로교회 브라이언 채플 목사는 서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고통과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막상 고통과 불행을 만나면 피할 수 없는 의심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 믿음마저 흔들린다”며 “신학자들은 이에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를 구별함으로써 대답하려 하겠지만, 복잡한 영적 양상과 인격적 성찰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만약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에 절대 포함되지 않을 법한 일을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적극적으로 창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악한 세력을 허락하신 것인가요?”라는 현장의 절실한 질문들에 응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플 목사는 우리의 불행이 어떤 선한 목적에서 비롯됐으리라는 나름의 추측 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으려 한다면,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시대의 신자와

이 책에 실린 설교들은 그 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가장 비참한 이 땅의 참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늘의 선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눈에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이 책에 설교를 기고한 목사들은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불행한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눈이 불행을 외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이 실패하지 않으심을 확신해야 한다고 더욱 자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소신과 지금 우리 삶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궁극적인 목적을 믿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대웅 기자

구원의 특별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 | 코르넬리스 프룽크 | 그책의사람들 | 104쪽

제목이 흥미롭다. 〈도르트 신조 강해〉, 〈은혜 교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 시리즈 등을 쓴, 청교도계 혁신학교 코르넬리스 프룽크 교수는 신작 〈구원의 순서(원제 The Way of Salvation)〉에서 구원의 순차적 단계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Ordo salutis)인 ‘구원의 순서’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단계 혹은 과정을 뜻한다. 특히 로마서 8장 29-30절에 기초해 구원을 적용하는 성경의 사역에서 연이은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원의 순서(길)’나 ‘순서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자와 고전적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루터주의자들이 의견 충돌을 보여왔고, 최근 칼 바르트나 베르카우어, 헤르만 리델보스 등은 비판하기도 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특별한 요소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구원의 요소들은 개혁주의 신조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 있고 이 요소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존 번연의 〈천로역정〉으로, 구원의 길을 순례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 비유하여 그려놓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구원을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적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저자는 구원의 순서를 ①소명 ②중생 ③회심 ④믿음 ⑤칭의 ⑥성화 등의 단

계를 나눴다. 북미자유개혁교회 교단 교육용 교재로 만들어진 책으로, 단계별 공과공부나 새신자반 교재로 적합하다.

소명은 ‘강력하고 변함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랑의 열매’이고, 중생 혹은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부르실 때 일어나는 것이다. 회심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으로,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변화를,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로 이뤄진다. 칭의는 믿음에 뒤따르는 법적 용어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며, 성화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과정이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깍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있을 보유안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몬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아채만두 · 올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신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뇨환!

동의당뇨환 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64세에 신학공부 67세에 교회 개척”

남상국 목사

낮 놓고 7자 몰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성경 공부 개발

64세에 신학공부를 시작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년 동안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공부를 마친다. 그 나이에 좀 어렵지만 이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그리고 67세에 교회를 개척한다? 이건 놀랍다 못해 괴이하기까지 한 사실이다. 그 주인공은 남상국 목사. 교회 이름은 오픈바이블교회로 애나하임에 위치해 있다. 개척 멤버는 현재 단 1명이 있는데 벌써 부목사 2명이 함께 하기로 했다.

미국에 이민 온 젊은 남상국은 미식축구와 TV에 미쳐서 살았다. 전형적인 선데이 크리스천에 예배 때도 즐기만 했다. 그는 이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재대로’ 읽게 되고 이제 성경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

그후 10여 년 동안 성경만을 독파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CD나 강해CD를 구해다가 독파했다. 집안 벽에 성경의 족보를 붙여놓고 그걸을 외우기도 했다. 신약을 읽을 때에는 혼자서 헬라어를 독파했다.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만화에 가까운 그의 그림은 나름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연대기와 사건, 배경을 해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낮 놓고 7자 몰라도 이해되는 성경 공부’다.

그의 성경 공부는 말과 그림으로 재미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낮 놓고 7자를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목사의 이런 불 같은 열심에 체계성을 더해 준 것은 학업이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는 자신의 성경적 지식에 신학적 체계를 더할 수 있게 됐다.



오픈바이블교회 남상국 목사.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지만 개척은 좀 다른 문제 아닐까? 그러나 그는 평신도 시절부터 ‘범상한 인물’은 아니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샌타애나 다운타운에서 매달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사역도 오랫동안 했다. 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는 한 미국 침례교회에서 사역자로 안수를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자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했다. 골든게이트신학교 학생인 D.K. Lee 전도사가 바로 이 교회에 합류했다. 그는 남 목사가 다운타운에서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알게 된 인물로, 홈리스 마약 중독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숙소를 구해 줄 정도로 열정적이다.

또 남 목사로부터 성경공부를 한 타민족들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교재를 번역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인타운과 애나하임, 벨

리, 토렌스 등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가교회(채동선 목사)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애나하임 성전을 무상으로 빌려 주겠다고 자처했다. 물론, 남 목사가 “무료로 빌리지 않겠다”고 극구 사양을 해 매달 500달러만 내게 된 에피소드도 있다.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 4월 13일부터 주일예배는 이미 시작했다. 첫날 예배에는 남 목사의 지인을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예배를 마친 후 한 성도는 “내 80 평생에 성경이 이렇게 쉽게 이해된 것은 처음이다”라고 증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 목사는 “나 같은 영터리 목사에게 교인을 한 명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에서 주일 오전 8시, 10시에 두 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다. 3부 예배는 오후 3시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드린다.

충남 아산 출신인 남 목사는 배재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도미했다. 이쯤해서 그의 가족 이력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형인 고 남상용 장로는 미시건 한인 역사의 산 증인이다. 4달러를 갖고 도미한 그는 부동산 사업으로 천만장자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미시건대학교에 한국 교육 과정 설립을 주도하고 대학 내 한국박물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가 4백만 달러를 기부한 남 한국학 연구소는 미국 최대의 한국학 연구소로 꼽히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선교에도 앞장선 것으로 유명했다.

또 동생 남상만 장로는 한국음식업중앙회장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문의 : 949-285-0619
obchurch7@gmail.com

칙필레 회장, 사업확장 때문에 동성결혼 반대 입장 슬그머니 완화

불과 2년 전, 성경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칙필레의 댄 캐시 회장은 공개적으로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칙필레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북동지역에 프랜차이즈 확장을 준비하면서 캐시 회장의 태도가 슬그머니 바뀌자, 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환영하고 지지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칙필레는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매년 수 백만 불을 도네이션 해왔고, 이런 회사의 정책을 동성결혼 옹호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이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칙필레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보이콧 하기도 했지만 칙필레는 2012년, 댄 캐시 회장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도 다만 회사의 방향성이라는 이유로 보수적인 성향을 고수해 왔다.

얼마 전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댄 캐시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혜로워진다. 우리(칙필레)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한다”고 밝혀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칙필레는 동남부 지역에 편중된 지점들에 불과하고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를 이끌어 온 KFC를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이에 올해 시카고, 뉴욕, 로스 앤젤레스 등 대도시 시장에 지점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실제 1,800개의 지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캐시 회장은 “나는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정치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회사에 이득이 안 되는 동성결혼 논란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강경’에서 ‘완화’로 돌아선 그의 태도 변화에 패밀리 리서치 카운셀의 지도자 토니 퍼킨스는 댄 캐시와 같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핑계 삼아 보수적인 입장에서 물러서고 있다고 조롱했다. 그는 “우리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겉잡이’가 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마이크 허커비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일요일 프로그램에서 밝혔다. 또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칙필레를 보이콧 하는 것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인들 중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화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을 재정의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캐시 회장은 2012년 여름 ‘더 비블리컬 리코더’ 잡지의 인터뷰에서 그의 회사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가족 형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지금 주목을 쥐고 흔들면서 하나님보다 결혼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달, 그는 애틀랜타 지연언론 AIC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회고했다.

“모든 지도자들은 성숙과 성장의 과정에 있어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배우기도 한다. 당신이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바보 같은 사람이다. 나 역시 지난 과정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디 김 기자

라틴아메리카, 복음적 개신교인 계속 늘어

새로운 조사 결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 인구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음적 개신교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칠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티노바로메트로가 16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인구 중 67%가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혔다. 이는 1995년 80%에서 13% 줄어든 수치다. 라티노바로메트로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가톨릭교회의 수장이 된 이후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볼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호감이 증가

하거나 교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톨릭교회들에 대한 신뢰도는 2011년 69%에서 2013년 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같은 기간 라틴아메리카의 복음적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증가했다.

라티노바로메트로는 “라틴아메리카는 가톨릭 대신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있다. 은사주의 개신교회의 활력 있고 힘 있는 봉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가톨릭교회 내에서 보이는 더욱 전통적인 예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오픈바이블교회가 창립예배에 앞서 매주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픈 바이블 교회 창립예배

OPEN BIBLE CHURCH

오픈 바이블 교회는 성경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향해 언제나 OPEN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창립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창립예배 5월 4일 주일 오후 5:30

Tel. (949)285-0619 e-mail : obchurch7@gmail.com

주소 : 800 S. Harbor Blvd. #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HYUNDAI
100,000
REASONS EVENT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pecial Event**

New!

2014 ALL IN STOCK HYUNDAI SONATA GLS

MSRP: \$22,450.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89 +TAX
36
Mon.

NEW 2013 GENESIS SEDAN (TECHNOLOGY PKG)
Stock# DU249043, DU247931, 237134

\$269 +TAX

MSRP: \$44,575. 24 months lease. After \$4,999 due at lease signing + \$2000 lease cash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SAVE UP TO **\$15,000**

\$45,170 +FEES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DRIVE 현대 Let's GO to 브라질

오늘 붉은 악마 티셔츠도 받고 월드컵 관람의 행운도 잡으세요!

행사기간: 3월 22일~5월 4일

자세한 내용은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Facebook.com/HyundaiKA 를 참조하십시오

*NO PURCHASE NECESSARY. Sweepstakes begins at 12:00 A.M. PDT on 3/22/14 and ends at 11:59:59 P.M. PDT on 5/4/14. Open only to legal residents of the 48 contiguous U.S. and D.C. who are at least 21 years old and licensed drivers. (2) Grand Prizes, each valued at \$20,000, will be awarded. Odds of winning depend upon the number of eligible entries received. Void in AK, HI, PR, and where prohibited. Sweepstakes subject to complete Official Rules, available at http://bit.ly/event_rules. Sponsor: Hyundai Motor America. FIFA World Cup™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and is used under license.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행운을 만나자.

- 1 푸엔테힐스 현대를 방문, 현대자동차를 시승하시면 붉은 악마 공식 티셔츠 증정
*딜러마다 수량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 2 현대딜러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명에게 2014 FIFA World Cup™ 한국 vs 러시아 경기티켓 및 6박7일 여행권 1인당 2매 증정**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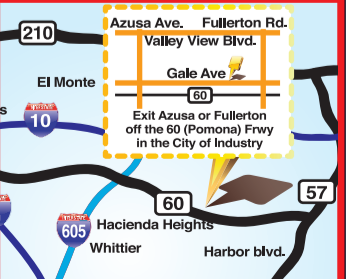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김
626.513.4580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